



# 해외보험리포트

---

## 인도편

---

손유영, 유성현



## Executive Summary

인도는 GDP 규모 세계 5위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2022년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인구 수 세계 1위 국가이며, 인구의 절반(43.26%) 가량이 24세 이하로 세계에서 5번째로 젊은 국가임. 1947년 독립 이후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인도는 1991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 후 성장을 지속하며 2023년 세계경제규모 5위 국가로 부상함. 모디 정부는 화폐개혁과 통합간접세 등을 도입하며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최근 'Make in India' 정책과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제도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며,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도 보험산업은 공영 보험회사의 독점에서 민영 보험회사의 시장 진출 및 외국 자본의 보험 시장 진입 단계를 거치며 점차 개방되는 과정에 있음.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의 소유 지분 허용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하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율은 3.7%이고 보험밀도는 약 95달러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6.3%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생명보험 종목에서는 사망보험(Life-insurance)이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퇴직연금(Pension) 19%, 연금보험(Annuity) 4% 순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업에는 1개의 공영보험회사와 24개의 민영보험회사가 있으며, 상위 5개 민영보험회사의 민간시장 점유율이 약 69%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4%로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7.6%)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함. 종목별로는 건강보험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보험 31.6%, 화재보험 9.3%, 해상보험 2% 순으로 나타남. 인도의 손해보험업은 공영보험회사, 민영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특화보험회사로 구분되며, 공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I

## 국가 개요 및 경제

### 1. 국가 개요

- 인도는 명목 GDP 규모 세계 5위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개발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음<sup>1)</sup>
  - 2023년 인도의 명목 GDP는 약 3조 5,720억 달러 규모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sup>2)</sup>, 2023년 기준 수출액 규모는 세계 16위임<sup>3)</sup>
    - 2022/2023년 회계연도 동안 인도는 최대 교역액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세계 교역의 감소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粗製品), 정미(精米), 귀금속 중심의 수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23년 상품수출은 약 4,4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함<sup>4)</sup>
  -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 주도형 성장모델의 성격을 보이며,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여타 개도국과 차이가 있음<sup>5)</sup>
    -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 62%, 산업 부문이 21%, 농업이 부문 17%를 차지함
    - 특히 I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1.2%에서 2016년 7.7%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IT/BPM<sup>6)</sup> 서비스의 연간 수출액은 1,170억 달러(2016/17년 기준)로 총 서비스 수출의 45% 이상을 차지함
  - 인도정부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등의 산업분야를 8대 핵심 산업군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산업생산에 대한 기여율이 40%에 이룸
    - 주력 산업으로는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이 있으며,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경우 투자 유치의 기반으로 함

1) KOTRA(2023), “국가지역정보-인도”

2) IMF(2024.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3)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lmpExpList.screen>);

4)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5)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6) BPM은 Business Process Management의 약자로, 비즈니스 성과 관리를 나타냄

-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14억 2,862만 명으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6.9%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43.26%) 가량이 24세 이하로 세계에서 5번째로 젊은 국가임<sup>7)</sup>
  - 2023년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145만 명 증가했으며, 생산가능인구가 약 9.6억(총 인구의 67.8%)명에 달하며 거대한 소비시장 및 노동시장을 보유함
    -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01명이었으며, 지난 10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2.19명 수준으로 1964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sup>8)</sup>
    - 매년 엔지니어 150만 명, MBA 졸업생 30만 명을 배출하며, 2023년 9월 기준 111개 유니콘 스타트업업을 보유한 국가로 우수한 이공계 노동력 및 혁신적 기업의 성장이 전망됨<sup>9)</sup>

〈표 1〉 인도 주요 국가 지표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3,287,263km <sup>2</sup>	인구 <sup>1</sup>	약 14억 2,862만 명
생산가능인구*	약 9억 6,080만 명	고령화 비율*	6.9%
소비자물가상승률 <sup>1</sup>	5.6%	경제성장률 <sup>1</sup>	7.6%
명목 GDP <sup>1</sup>	3조 5,720억 달러	1인당 GDP <sup>1</sup>	2,485 달러
기대 수명(남)*	66.3세	기대 수명(여)*	69.4세

주: \*는 2022년 기준, !는 2023년 기준임

자료: 인도정부포털(India.Gov.in); OECD Data Explorer; The World Bank(2024), World Bank Open Data - India;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World Bank Open Data

- 인도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 문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야 함<sup>10)</sup>
  - 인도는 약 4억 4천만 명(전체 인구 수의 34%)의 밀레니엄 세대<sup>11)</su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임
    - 밀레니엄 세대는 전체 노동 및 소비 분야에서 약 48%를 차지하며, 다수의 밀레니엄 세대로 인해 인도 소매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주요한 지표인 도시화율은 2020년 기준 34.93%이지만 UN은 2030년까지 인도의 도시화율이 40.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 정부의 102조 루피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NIP)에 따라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7) 65세 이상 인구, 24세 이하 인구 비중은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2년 자료를 토대로 계산됨

8)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9) KOTRA(2023), “국가지역정보-인도”

10) Deloitte(2019), “Unravelling the Indian Consumer”

11) 여기서 밀레니엄 세대는 1984년생부터 2001년생을 나타냄

나서고 있음

-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함

## 2. 경제

- 1947년 독립 이후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인도는 1991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 후 IT기반 서비스업·제조업·내수시장 성장을 지속하며<sup>12)</sup> 2023년 세계경제규모 5위 국가로 부상함<sup>13)</sup>
  - 인도는 독립 직후 농업 부문에 의존하는 국가였으나, 1950년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기반의 산업화를 추진했으며, 1960년대 농업 개혁을 통해 식량의 자급자족에 성공함
  - 1970년대 독점규제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을 제정하며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지속함
  - 1980년대 부분적 경제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며 외국인 투자 및 경제개방을 추진했으나, 인도의 국제신용도가 A2에서 BAA1으로 하락하며 외환위기가 발생,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개방경제 정책을 도입하며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함
    - 1991년 인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8.4%로 증가하고, 정부부채가 GDP의 53%로 증가했으며, 걸프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의 급등,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외환보유액 부족 현상 발생함
  - 1991년 경제개방 이후 공기업 지정산업을 민간에 개방,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IT산업 확대, 무역 자유화 등을 통해 민간의 성장을 주도하며 정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노력함
  - 1992년 복수환율제도를 도입했던 인도의 루피화는 1993년 변동환율제 도입, 1994년 IMF 분류 8조(Article VIII) 국가로 진입하며 외환 시장 안정화를 입증함
  - 1993년 이후 인도 경제성장에서 농업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I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 인도 경제성장을 주도함<sup>14)</sup>
    - 1993년 농업 부문이 GDP의 31.8%, 서비스 부문이 41.3%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농업 부문이 17.8%로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은 55.3%로 증가함
    - 제조업의 비중은 1993년 26.9%에서 2009년 27.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2) 한국은행(2023),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 잠재력 및 리스크 평가”

13)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표 2〉 인도 주요 경제정책 변천

시기	총리(당)	경제개발계획	주요 정책 내용
1947~1964	자와할랄 네루 (국민회의당)	제1차(1951~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불균형 시정, 국민소득 및 생산성 향상, 농업 및 전력 개발</li> <li>연평균 3.6% 성장</li> <li>식량생산 비교적 호조</li> </ul>
		제2차(1956~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 고용기회 증대, 기초 공업 및 중공업 개발</li> <li>연평균 4.0% 성장</li> <li>국제수지 악화</li> </ul>
1964~1966	랄 바하두르 사스트리 (국민회의당)	제3차(1961~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의 가속화, 자립경제 달성, 식량자급 및 중공업 우선</li> <li>연평균 2.5% 성장</li> <li>인도네시아·파키스탄 전쟁으로 계획 실패</li> <li>농업생산 부진</li> </ul>
		제4차(1969~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안정성장, 소득불균형 시정, 농업 개발 및 수출 증대</li> <li>1970년 독점규제법 제정(대기업의 활동 규제)</li> <li>1973년 외환규제법 제정 (40%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도록 함)</li> <li>공기업이 국가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기초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부문까지 진출</li> <li>기후불순, 석유파동으로 연평균 3.4% 성장</li> </ul>
1966~1977	인디라 간디 (국민회의당)	제5차(1974~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경제 확립, 국민소득 평균 및 생활 개선, 수출 증진, 물가 안정</li> </ul>
1977~1979	모라르지 데사이 (국민당)		
1979~1980	차우드하리 차란 싱 (국민당)	-	-
1980~1984	인디라 간디 (국민회의당)	제6차(1980~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및 공업기반 공고화, 자립경제 정립, 기술 개발</li> <li>연평균 5.1% 성장</li> </ul>
1984~1989	라지브 간디 (국민회의당)	제7차(1985~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성 향상, 고용증대 및 식량증산</li> <li>경제 자유화 정책 실시</li> <li>연평균 5.8% 성장</li> <li>국내 저축률 20.3%</li> </ul>
1989~1990	비사나트 프라타프 싱 (국민당)		
1990~1991	찬드라 셰카르 (국민회의당)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 발표(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루식 사회주의 → 경제개혁</li> <li>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창출, 인도경제의 국제 경쟁력 확보</li> <li>산업허가제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기술도입 자유화, 공기업의 역할 축소, 소기업 영역의 대 폭 축소</li> </ul>



〈표 2〉 계속

시기	총리(당)	경제개발계획	주요 정책 내용
1991~1996	나라심하 라오 (국민회의당)	제8차(1992~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 건강 및 교육의 질 향상, 완전고용 실현 및 빈곤타파, 인구증가의 적정 수준 유지</li> <li>• 1992년 루피화 복수환율제도 도입</li> <li>• 1993년 루피화 변동환율제도 도입</li> <li>• 1994년 루피화 완전태환으로 IMF 8조국</li> <li>• 연평균 7% 성장</li> </ul>
1996~1996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국민당)		
1996~1997	데베 고우다 (국민회의당)		
1997~1998	구즈랄 (국민당)	제9차(1997~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타파 및 고용 증대, 농업생산 증대, 문명 타파</li> <li>• 1999년 경제정책과 법 제정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 설립, 정보기술부 신설</li> <li>• G20(Group of Twenty) 창립 회원국</li> <li>• 경쟁촉진정책 추진(IT, 전자, 자동차, 철강)</li> <li>• 2000년 정보기술법 제정, 국가섬유정책 발표</li> <li>• 2002년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제정</li> <li>• 연평균 5.4% 성장</li> </ul>
1998~2004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국민민주연합)		
2004~2014	만모한 싱 (국민회의당)	제10차(2002~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타파 및 고용 증대, 인구 억제 및 교육기회 확대, 문명 타파, 생활수준 향상</li> <li>• 2004년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 발표</li> <li>• 2005년 국가제조업육성전략 발표</li> <li>• 연평균 7% 성장</li> </ul>
		제11차(2007~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계층·지역간 균형 성장을 위한 “포괄적 성장” 추진(경쟁촉진 → 공생개혁)</li> <li>• 2009년 국가 농촌 고용 보장 계획 프로그램, 국가 식량 안보 법률</li> <li>• 빈곤 타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li> <li>• 민간 분야의 성장 촉진</li> <li>• 연평균 8.3% 성장</li> </ul>
2014~현재	나렌드라 모디 (국민민주연합)	제12차(2012~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하고, 더 포괄적인 성장 추진</li> <li>• 빈곤 타파, 고용증대, 양성 평등,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투자(특히 인프라) 확대</li> <li>• 2016년 화폐개혁</li> <li>• 2017년 통합간접세(GST) 도입</li> </ul>

자료: 외교부-인도개발(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은행(2018), “최근 인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홍콩 IB의 평가”

- 2016년 모디 정부는 화폐개혁과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도입을 통해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탈세 및 부패를 근절하며, 간접세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된 단일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함<sup>15)</sup>

- 화폐개혁은 기존 500루피 및 1,000루피 지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신권 500루피와 2,000루피 지폐를 도입한 것으로 당시 인도에서 유통된 위조지폐의 규모는 약 40억 루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근절하고 검은돈(Black money) 회수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
  - 당시 인도는 아시아 국가 중 예금 대비 현금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며, 현금 비중이 2016년 중 크게 증가하여 12.5%를 초과하는 등 현금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8.3%, 2017년 경제성장률은 6.8%로, 소비위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성장둔화가 발생했음
  -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보석류, 자동차, 부동산 등의 매출과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2017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과하고, 지방정부별로 상이하던 조세체계를 단일화하는 통합간접세(GST)를 도입하여 물류 거래의 활성화와 세원의 투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

○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과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제도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적극 촉진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주목받으며 경제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Make in India' 정책은 2025년까지 제조업 부문의 GDP 기여율을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100% 허용, 세율 인하, 과세 대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는 특정 전자부품 제조 기업이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액에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약 2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sup>16)</sup>
- 미·중 갈등,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인건비 경쟁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를 대안 국가로 선호하고 있으며, 생산 거점을 인도로 이전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15) 한국은행(2017), "최근 인도가 실시한 일부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2018), "최근 인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홍콩 IB의 평가"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한 인도의 도전: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제도"

# II

##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인도 보험업법 제정 이후 보험산업의 주요 규제 변화는 크게 공영 보험회사의 독점, 이후 민영보험회사의 허용, 외국인 자본의 투자 규제 완화로 구분할 수 있음
  - 1938년 보험업법이 제정되었으며, 1956년 생명보험회사들이 인도 생명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LIC)로 공영화되었고, 1972년 손해보험회사들이 인도 손해보험공사(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GIC)로 공영화되면서 1999년 이전까지 공영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을 독점함
  - 1999년 보험감독기구인 인도보험감독청(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IRDA)이 설치되었고, 민영보험회사를 허용하여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짐
  - 201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외국계 보험회사의 인도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이후 202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자본의 투자 지분 상한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해외 보험회사의 인도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2015년 보험업법 개정은 인도의 보험산업 규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동 개정으로 인도보험감독청(IRDAI)<sup>17)</sup>의 권한이 강화되고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됨<sup>18)</sup>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급여력, 자산운용, 수수료 등 보험업 감독에 필요한 규제를 제정하고,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개입을 허용함
  -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재무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 비율이 150%를 넘기도록 보험업법에 명시함
  - 201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자본의 투자 지분 상한은 1999년 규제에서 설정되었던 26%에서 2015년 49%로 확대됨
  - 2021년 4월 보험업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외국인 자본의 투자 지분 상한은 49%에서 74%로 확대됨

17) 보험감독청 명칭이 IRDA에서 IRDAI(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로 변경됨

18) 이승준·정인영(2019),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15. 3), “Major Highlights of the Insurance Law(Amendment) Bill 2015 Passed by Parliament”

- 이러한 외국인 자본의 투자 비율 규제 완화는 외국인 자본의 인도 보험시장 진입 또는 인도 내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는 외국 보험회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글로벌 보험 그룹들이 소유 지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표적인 예로 Generali와 Aviva는 최근 지분을 각각 68%, 74%까지 확대함
- 2024년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인도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존의 34개의 규제를 6개의 규제<sup>19)</sup>로 통합하고, 2개의 규제<sup>20)</sup>를 도입함
  - 보험상품의 구매, 판매, 청구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보험시장(Bima Sugam)을 설립함
  - 보험증권의 전자 발행을 의무화하고, 철회 기간을 30일 연장하며 수익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

〈표 3〉 인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38	• Insurance Act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제정
1956	• 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 : 모든 민영 생명보험회사를 공영 생명보험회사 LIC(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로 통합
1972	• General Insurance Business Act : 공영 손해보험회사 GIC(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를 설립하고, GIC가 독점적으로 손해보험 회사업을 운영하도록 권리 부여
1999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 Act 1999 : 민영보험회사 운영 허용 및 보험감독기구 IRDA 설치, 민영보험회사 최소 요구자본 및 지급준비금 기준 마련, 합작투자(JV) 외국 투자자 소유 지분 26%로 제한
2000	• Foreign Exchange Management(Insurance) Regulations : 해외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보험 포함)에 대한 규제 마련
2015	• Insurance Laws(Amendment) Act : 외국 보험회사 투자지분 제한을 기존 26%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계 재보험회사의 인도 지점 설립을 허용 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보험감독청 명칭이 IRDA에서 IRDAI(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로 변경되고 권한이 강화됨
2021	• Insurance(Amendment) Act : 외국인 투자 비율을 49%에서 74%로 완화
2023	• IRDIA Reinsurance(Amendment) Regulation, 2023 : 재보험회사들은 최소 유지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이는 IIO에 대한 역재보험이 포함, 로이즈 외의 외국 재보험회사의 최소 자본 요건이 기존 10억 루피(USD 1,200만)에서 5억 루피(USD 600만)로 하향

<sup>19)</sup> IRDAI(외국 재보험회사 지정 및 Lloyd's 인도의 등록 및 운영) 규제, 2024; IRDAI(보험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규제, 2024; IRDAI(계리, 재무 및 투자 기능) 규제, 2024; IRDAI(보험회사의 관리 비용, 수수료 포함) 규제, 2024; IRDAI(보험 상품) 규제, 2024; IRDAI(보험회사의 등록, 자본 구조, 주식 양도 및 합병) 규제, 2024

<sup>20)</sup> IRDAI(비마 수감-보험 전자 시장) 규제, 2024; IRDAI(보험계약자 이익 보호 및 관련 사항) 규제, 2024

〈표 3〉 계속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DIA Regulations, 2024</li> <li>: 재보험 규제 개정, 기업 거버넌스 규제 도입, 그리고 보험회사의 계리, 재무 및 투자 기능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 비마 수감(Bima Sugam)이라는 온라인 보험시장 설립, 모든 보험증권의 전자 발행이 의무화</li> </ul>

자료: 보험연구원(2023), “해외 보험동향 2023-2”; AXCO(2024),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India”를 기초로 작성함

##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인도의 보험산업은 인도보험감독청(IRDAI)에 의해 감독되며,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함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1999년 보험 규제 및 개발법(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보험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보험회사, 보험중개업체(에이전트, 브로커 등) 및 제3자 관리업체(TPA)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규제 권한을 보유함
  - 2021년 인도생명보험공사(LIC), 인도손해보험공사(GIC), 뉴인디아 보험회사(New India Assurance Co. Ltd)는 D-SI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로 지정되어 강화된 규제 감독을 받음<sup>21)</sup>
    - D-SII는 해당 보험회사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인도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보험회사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하거나 시장 규율을 어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임
  - 연금 부문의 경우 연금 기금 규제 개발청(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PFRDA)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국가연금제도(National Pension System; NPS)와 Atal Pension Yojana(APY)<sup>22)</sup>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제도를 통해 연금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관리할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집행 권한은 인도보험감독청(IRDAI)에 위임됨<sup>23)</sup>

<sup>21)</sup> IRDAI releases(2023. 3. 31), List of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D-SIIs)

<sup>22)</sup> Atal Pension Yojana(APY)는 18~40세 사이의 인도 시민 중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연금제도임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험정보국(IIB; Insurance Information Bureau of India)으로부터 인도 보험 산업에 대한 데이터 및 정책 조연을 받고 있음

## 가. 인도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재보험 거래, 투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 시장의 신뢰를 강화함
  - 보험회사들이 법정 지급여력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강화된 규제를 시행함
  - 재보험사 및 재보험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들의 재무 건전성과 위험 분산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함
  - 보험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과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나친 위험 추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보장하도록 규제를 강화함
- 최근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인도 보험 시장의 디지털화로,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와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공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규제하여, 상품 설계와 계약 조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보험 상품의 비교, 구매, 청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전자 플랫폼을 도입함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도록 함

##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인도 보험회사는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며, 보험회사의 등록과 면허 발급은 인도보험감독청(IRDAI)의 ‘Registration of Indian Insurance Companies 2022’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여됨<sup>24)</sup>

<sup>23)</sup> AXCO(2024),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보험회사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요건은 생명보험·손해보험·건강보험·특화보험회사의 경우 10억 루피가 필요하며, 재보험회사의 경우 본사는 50억 루피, 지점은 20억 루피가 필요함
  - 인도에서 보험회사는 국가 소유 또는 민간 소유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며, 상호보험 및 외국계 보험회사의 독립적인 운영은 허용되지 않음
  -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대 74%까지 허용되며, 26%까지는 사전 승인 없이 투자가 가능하나 26%를 초과 하는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 통제 및 보험회사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인도보험감독개발청(IRDAI) 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2024년 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보험회사(Composite insurers) 운영을 위한 복합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자본요건 완화 및 재무 건전성 기준 조정 등과 같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sup>25)</sup>

#### 다.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1999년 제정된 IRDAI(보험감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10억 루피(약 1,200만 달러), 인도 재보험회사의 경우 20억 루피(약 2,400만 달러)를 명시함
  - 2023년 개정된 IRDAI 재보험회사 규제에서는 로이즈를 제외한 외국 재보험회사에게 5억 루피(약 600만 달러)의 최저 자본금 납입을 명시함
- 보험업법 64조V에 따라 인도 내 보험회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은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6년 IRDAI(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Life/General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s에서 솔벤시 마진 비율을 150% 이상으로 규정함
  - 위 150%는 보험업법 64조VA 3항에 따라 인도보험감독청(IRDAI)이 명시한 비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64조VA 4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 라. 소비자 보호 규제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Bima Bharosa'라는 통합불만관리시스템과 보험 ombudsman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26)</sup>

<sup>24)</sup> AXCO(2024),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sup>25)</sup> The Economic Times(2024. 7. 15), "Major insurance changes in Budget 2024: Combi products offering life, health insurance soon; will insurers sell mutual funds?"

- ‘Bima Bharosa’는 보험계약자의 민원을 접수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며 보험회사는 2주 내에 응답해야 함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Bima Bharosa’에 접수된 보험계약자의 민원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는 ‘Bima Bharosa’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응답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보험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경우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하며, 옴부즈만은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300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금을 판정할 수 있음
  - 2022/2023 회계연도에 Bima Bharosa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20만 2,640건이었으며, 이 중 12만 4,293건은 생명보험, 7만 8,347건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민원이었음<sup>26)</sup>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sup>28)</sup>
- 2024년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청약 철회 시 환불금이 전자 송금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2021년 개정된 보험업법(Insurance Amendment Act 2021)과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규칙(Indian Insurance Companies Amendment Rules 202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 상한이 49%에서 74%로 상향 조정됨
- 2024년 IRDAI(Registration, Capital Structure, Transfer of Shares and Amalgamation of Insurers) 규제에서 외국 보험회사가 인도에서 보험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와 인도 현지 파트너 간의 상업적 제휴를 상세히 설명한 양해각서(MOU)의 공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2015년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외국계 재보험회사의 지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제(Registration and Operations of Branch Offices of Foreign Reinsurers other than Lloyd’s) 요건을 정의하며, Lloyd’s를 포함한 외국계 재보험회사 지점의 인도 내 사업을 허용함

<sup>26)</sup> IRDAI 홈페이지 Consumer Affairs FAQs

<sup>27)</sup>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sup>28)</sup> IRDAI(2024),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and Allied matters of Insurers) Regulations, 2024”



##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보험산업의 투자는 인도보험감독청(IRDA)의 투자 규제(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Investment) Regulations, 2000)에 따라 부문별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모든 투자는 신용평가기관의 AA등급 이상의 등급이어야 하고,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에 투자해야 함<sup>29)</sup>
  - 생명보험회사는 국채에 25%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국채 투자를 포함하여 50% 이상을 국채 또는 기타 승인된 채권에 투자해야 함
  - 비생명보험회사는 국채에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국채 투자를 포함하여 30% 이상을 국채 또는 기타 승인된 채권에 투자해야 함

## 사. 의무보험

- 인도보험감독청(IRDA)은 2015년 보험회사의 농촌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의무 규정과 보험회사의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사업에 대한 의무 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1988년 자동차법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야 함
  - 보험회사는 농촌 및 사회 취약 부문에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원수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농촌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험회사는 프라단 만트리 잔 아로가야 요지나(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 PMJAY)<sup>30)</sup>와 같은 정부 계획하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sup>29)</sup> IRDA(2000) IRDA(Investment)Regulations, 2000

<sup>30)</sup> 빈곤 및 취약 계층(하위 40%, 12억 가구, 수혜자 약 55억 명)의 2차 및 3차 치료 입원에 대해 연간 가구당 50만 루피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임

# III

## 보험시장 현황

###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인도 정부는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부문에서 보험 사각지대 및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보험’을 목표로 주별 보험 계획(State Insurance Plan; SIP)을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 중산층 확대, 혁신, 규제 지원 등을 동력으로 인도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Swiss Re에 따르면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세계 보험시장의 1.9%를 차지하며 세계 10위의 보험 시장 규모를 기록함
  - 2023년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7조 1,861억 달러이며, 인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1,359억 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2위), 일본(4위), 한국(7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2023년 인도 생명보험시장은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3.5%를 차지하여 7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0.8%를 차지하여 15위의 규모를 기록하였음
- 2023년 기준 인도의 보험침투율은 3.7%이며, 보험밀도는 95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인도의 보험침투율은 아시아 신흥국 중 중국(3.9%)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밀도는 베트남(100달러)과 유사하며,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각각 2.8%와 1.0%이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밀도는 각각 70달러, 25달러임

〈표 4〉 아시아 신흥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시장규모 (백만 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달러)
중국	2	10.1	723,664	3.9	508
인도	10	1.9	135,958	3.7	95
태국	27	0.4	26,380	5.3	384
말레이시아	32	0.3	20,237	5.2	590
인도네시아	34	0.3	18,353	1.3	66
베트남	43	0.1	9,447	2.3	100
필리핀	45	0.1	7,758	1.8	66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73.7%, 26.3%로 생명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생명보험업 수입보험료는 지난 5년간 인도 보험시장의 약 75% 차지하며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음
    -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4.75%) 대비 낮은 수치임
  - 손해보험업 수입보험료 역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 보험산업 대비 비중은 25% 내 외를 유지하는 수준임

〈표 5〉 인도 보험산업 업권별 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생명보험업	72,673(74.9)	80,791(75.7)	84,690(75.6)	92,953(75.0)	97,371(75.0)	100,185(73.7)
손해보험업	24,669(25.1)	27,102(24.3)	27,221(24.4)	30,062(25.0)	32,394(25.0)	35,773(26.3)
전체	97,342	107,893	111,911	123,016	129,765	135,958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2023년 3월 기준 인도에는 69개의 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 25개, 손해보험회사 25개, 건강보험회사 5개, 특화보험회사 2개, 재보험회사 12개로 구성되어 있음<sup>31)</sup>
  - 인도 보험회사는 공영과 민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공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1개, 손해보험회사 4개, 특화보험회사 2개, 재보험회사 1개가 있음

31)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 생명보험 영업소의 수는 11,256개로 생명보험 영업소의 약 59%가 인구 10만 명 이상의 1등급(Tier 1)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5,000명 미만의 6등급(Tier 6) 지역에는 약 0.76%의 생명보험 영업소가 있음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회사는 총 9,917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2년 기준 인도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995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7.0% 증가함<sup>32)</sup>
  - 투자 이익은 민영 부문의 투자 이익이 감소하며 2023년에 3조 8,906억 루피로 전년 대비 약 6.64% 감소함
    - 공영 부문의 투자 이익은 7.25% 증가하였으나 민영 보험회사들의 투자 이익이 39.86% 감소함
  - 2022~23년도 세후이익(Profit After Tax; PAT)은 4,279억 루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함
    - 2022~23년도에 운영 중이었던 24개의 생명보험회사 중 17개 회사가 이익을 보고하였음
    - 공영 부문의 이익은 800% 증가하였으며, 민영 보험회사들의 이익은 72.36% 증가함
    - 공영 부문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가용 지급여력(Available Solvency Margin) 기금에서 발생 하는 수익이 해당 회계 기간의 수익으로 처리되도록 회계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 2023년 기준, 생명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솔벤시 마진 비율은 150%이며, 2023년 인도 생명보험공사의 솔벤시 비율은 187%로 전년 대비 2%p 증가함

〈표 6〉 인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해외보험료, 투자이익, 세후 순이익 등 변화 추이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수입보험료	금액	508,132	572,910	628,731	692,614	782,504
해외 보험료	금액	370.27	378.26	400.34	419.7	404.78
지급 보험금	금액	329,678	351,467	398,772	502,097	496,865
운영비용	금액	51,130	60,121	61,422	71,435	89,443
	비율	10.06	10.49	9.77	10.31	11.43
투자이익	금액	284,800	233,744	466,030	416,711	389,062
	성장률	8.78	-17.93	99.38	-10.58	-6.64

<sup>32)</sup> Swiss Re(2023), "World insurance", sigma 3/2023

〈표 6〉 계속

구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세후 순이익	금액	8,436	7,728	8,661	7,751	42,788
	성장률	-0.89	-8.39	12.07	-10.51	452.03
Solvency 마진 비율		160	155	176	185	187
실질 GDP 성장률		3.9	-5.8	9.7	7.0	7.8

주: Solvency II 비율은 공영부문(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종목별 수입보험료를 살펴보면 사망보험(Life)의 보험료의 비중이 약 76%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퇴직연금(Pension), 연금보험(Annuity) 순임<sup>33)</sup>

- 2023년 사망보험 보험료는 5조 9,722억 루피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퇴직연금(Pension)이 1조 4,863억 루피로 18.99%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종목별 수입보험료 중에서는 퇴직연금(Pension)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금보험(Annuity)의 경우 2019년도 약 6.5%에서 2023년 4.3%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반면 건강보험(Health)과 변액보험(Variable)의 비중은 2023년 기준 각각 0.09%, 0.29%를 차지함

〈표 7〉 인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sup>1)</sup>

(단위: 천만 IN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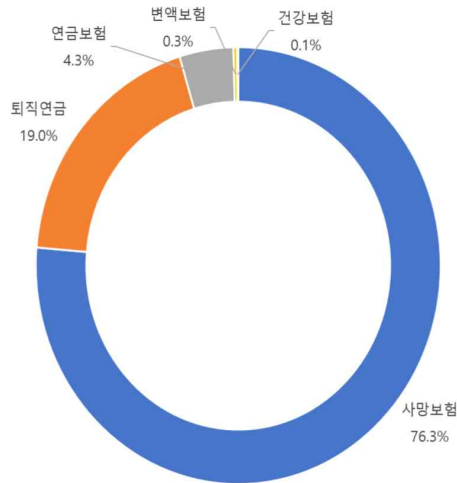
구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연금보험 (Annuity)	금액	32,810	43,657	31,594	27,856	33,637
	비중	6.46	7.62	5.03	4.02	4.30
건강보험 (Health)	금액	891	844	820	798	741
	비중	0.18	0.15	0.13	0.12	0.09
사망보험 (Life)	금액	415,951	432,873	482,677	534,304	597,221
	비중	81.86	75.56	76.77	77.114	76.32
퇴직연금 (Pension)	금액	52,503	88,451	109,830	124,526	148,625
	비중	10.33	15.44	17.47	17.98	18.99
변액보험 (Variable)	금액	5,978	7,085	3,811	5132	2,279
	비중	1.18	1.24	0.61	0.74	0.29
합계	금액	508,132	572,910	628,731	692,614	782,504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위 수입보험료는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의 총합임  
 2)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반올림 오차로 인해 각 합계치는 단순 합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sup>33)</sup> IRDAI, "Annual Report", 각호

〈그림 1〉 인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3년)

(단위: %)



자료: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 인도 생명보험시장에는 2023년 기준 1개의 공영 생명보험회사와 24개의 민영생명보험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sup>34)</sup> 상위 5개 민영보험회사의 민영시장 점유율이 약 69%임

- 2022~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SBI Life Insurance Co. Ltd., HDFC Life Insurance Co. Ltd.,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 Ltd., Max Life Insurance Co. Ltd., Tata AIA Life Insurance Co. Ltd.의 민영보험시장점유율은 각각 22.1%, 18.9%, 13.1%, 8.3%, 6.7%임
  - 인도 1위 민영생명보험회사인 SBI Life는 2000년 10월 설립되어 2001년 3월에 인도보험감독청(IRDAI)에 등록된 생명보험회사로, 인도의 다국적 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와 프랑스의 생명보험회사인 BNP Paribas Cardif의 합작투자자로 설립됨
  - SBI Life는 SBI의 광범위한 은행 네트워크와 BNP Paribas Cardif가 가진 생명보험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함
- 2023년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782,504 천만 루피임
  - 이 중 공영 부문이 474,668 천만 루피로 약 60.7%를 차지하며 민영 부문이 307,836 천만 루피로 39.3%를 차지함
  - 민영보험의 성장률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영 부문의 보험은 평균 8%의 성장률을 보임

<sup>34)</sup>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표 8〉 인도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만 INR, %)

회사명	2021~2022년		2022~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b>공영보험회사</b>	<b>428,025</b>	<b>61.80</b>	<b>474,668</b>	<b>60.66</b>	<b>10.90</b>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428,025	61.80	474,668	60.66	10.90
<b>민영보험회사</b>	<b>264,589</b>	<b>38.20</b>	<b>307,835</b>	<b>39.34</b>	<b>16.34</b>
SBI Life Insurance Co. Ltd.	58,760	8.48	67,316	8.60	14.56
HDFC Life Insurance Co. Ltd.	45,963	6.64	57,533	7.35	25.17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 Ltd.	37,458	5.41	39,933	5.10	6.61
Max Life Insurance Co. Ltd.	22,414	3.24	25,342	3.24	13.06
Tata AIA Life Insurance Co. Ltd.	14,445	2.09	20,504	2.62	41.94
Bajaj Allianz Life Insurance Co. Ltd.	16,127	2.33	19,461	2.49	20.68
Kotak Mahindra Life Insurance Co. Ltd.	13,015	1.88	15,320	1.96	17.71
Aditya Birla Sun Life Insurance Co. Ltd.	12,140	1.75	15,070	1.93	24.13
PNB MetLife India Insurance Co. Ltd.	7,348	1.06	8,785	1.12	19.55
Canara HSBC Life Insurance Co. Ltd.	5,890	0.85	7,197	0.92	22.20
...	...	...	...	...	...
<b>합계</b>	<b>692,614</b>	<b>100.00</b>	<b>782,504</b>	<b>100.00</b>	<b>12.98</b>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표 9〉 인도 생명보험회사 부문별 수입보험료 및 비중 변화<sup>1)</sup>

(단위: %)

구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LIC	수입보험료	337,505 (6.06)	379,390 (12.41)	403,287 (6.30)	428,025 (6.13)	474,668 (10.90)
	비중	66.42	66.22	64.14	61.80	60.66
민영 부문	수입보험료	170,627 (21.37)	193,521 (13.42)	225,444 (16.50)	264,589 (17.36)	307,836 (16.34)
	비중	33.58	33.78	35.86	38.20	39.34
<b>총합</b>		<b>508,132 (10.75)</b>	<b>572,910 (12.75)</b>	<b>628,731 (9.74)</b>	<b>692,614 (10.16)</b>	<b>782,504 (12.98)</b>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성장률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인도 민영생명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사 채널의 중요성이 작아지고 있음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6년 이후로 방카슈랑스<sup>35)</sup> 채널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설계사, 직판의 비중이 높음
  - 법인 보험대리점(Corporate Agents; CA)은 인도보험감독청(IRDAI)이 발급한 유효한 등록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5년 IRDAI (Registration of Corporate Agents) Regulations, 2015에 따라 보험사업의 영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임
  - 2022년 IRDAI (Insurance Intermediaries) (Amendment) Regulations, 2022가 개정되며 법인 보험대리점(Corporate Agents; CA)과 보험 마케팅 회사(Insurance Marketing Firms; IMF)의 제휴가 증가함
- 설계사 채널은 2014년 40.1%에서 2023년 26.1%로 감소하였으며, 직판의 비중은 같은 기간 7.4%에서 13.2%로 5.8%p 증가함
  - 반면 2023년 3월 설계사의 수는 약 262.8만 명으로 2022년 3월에 비하여 7.57% 증가함
- 반면 인도 생명보험공사(LIC)의 경우, 약 96%가 설계사에 의해 판매되며, 약 3%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되어 인도 생명보험공사와는 차이를 보임

〈표 10〉 인도 민영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sup>1)</sup>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sup>2)</sup>	2023
설계사	40.1	35.7	31.9	30.1	27.9	25.6	24.6	23.0	22.9	23.1
방카슈랑스	43.6	47.4	51.7	53.5	54.2	53.9	52.7	54.6	54.8	53.2
법인 보험대리점-기타	4.0	3.4	3.0	3.0	2.9	2.9	3.0	3.3	3.4	3.9
중개사	4.9	4.5	3.6	3.0	2.9	2.9	3.4	2.8	3.4	5.1
기타	7.4	9.0	9.8	10.4	12.1	14.7	16.3	16.3	15.5	14.7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구분 중 기타에는 직판, MI 대리점, CSCs, 보험 마케팅 회사, 온라인, PoS(Point of Sales) 등이 포함됨

3) 민영생명보험회사 판매비중을 계산할 때 SAHI는 제외됨

4)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인도 생명보험업의 자산운용은 중앙정부 국채 투자가 전체 자산운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채권이 그다음 비중을 차지함

- 인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전통적인 펀드와 ULIP 펀드<sup>36)</sup>에 투자된 자기에 따라 구분됨
- 2023년 3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총 자산은 54.6조 루피였으며 이 중 88.85%가 전통적인 펀드에서,

<sup>35)</sup> 법인 대리인-은행은 Corporate Agents-Banks를 의미함

<sup>36)</sup> ULIP(Unit-Linked Insurance Products) 펀드란, 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부는 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는 구조이며 인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음



나머지 6.1조 루피가 ULIP 펀드에서 발생함

- 인도 보험업법 27조에서는 모든 생명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에게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IRDA (Investment) Regulations, 2000에서는 중앙정부 국채, 지방정부 채권 및 승인된 투자에 대한 비중을 각각 규제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의 경우 투자 규제에 따라 중앙정부 국채에 25%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중앙정부 국채 투자를 포함하여 50% 이상을 중앙정부 국채 또는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해야 함

〈표 11〉 인도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전통펀드	중앙정부 국채	금액	1,215,622	1,405,754	1,671,268	1,895,074	2,182,289
		구성비	38.94	39.97	42.23	43.46	44.95
	지방정부 채권	금액	867,521	965,846	1,043,770	1,079,100	1,160,415
		구성비	27.79	27.46	26.38	24.75	23.9
	주택 및 인프라	금액	253,187	275,434	416,718	394,524	457,272
		구성비	8.11	7.83	10.53	9.05	9.42
	승인된 투자 <sup>1)</sup>	금액	661,247	732,023	680,935	836,597	913,359
		구성비	21.18	20.81	17.21	19.19	18.82
	기타 투자	금액	124,141	138,145	144,452	155,341	141,084
		구성비	3.98	3.93	3.65	3.56	2.91
	소계	금액	3,121,717	3,517,202	3,957,144	4,360,637	4,854,419
		구성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ULIP 펀드	승인된 투자	금액	378,781	349,193	475,204	525,205	550,523
		구성비	92.07	93.60	90.89	88.78	90.4
	기타 투자	금액	32,645	23,879	47,626	66,346	58,472
		구성비	7.93	6.40	9.11	11.22	9.6
	소계	금액	411,425	373,072	522,830	591,550	608,995
		구성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합계	금액	3,533,143	3,890,274	4,479,973	4,952,187	5,463,414	

주: 1) 승인된 투자(Appeared Investments)란, 인도 보험업법 27A에 명시된 투자를 나타냄. 다만 이중 다른 나라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하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강함(Very strong)'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담보 대출, 예금, 사채, 채권, 기타 부채 상품, 주식 및 우선주 등이 포함됨(예: Standard and Poor의 AA등급)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IRDA(2000), "(Investment) Regulations, 2000"

###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3년 기준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2조 5,689억 루피(약 309억 달러)로,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4%를 기록했으며, 실질 GDP 성장률(7.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종목별로는 건강보험이 9,766억 루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자동차보험이 8,128억 루피로 31.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은 인도의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 의료 비용의 상승, 인슈어테크의 혁신 등을 기반으로 2023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1.3%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소득의 증가와 낮은 차량 보급률,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원수보험료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3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5.4%를 기록함

〈표 12〉 인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화재보험	금액	11,667	15,728	20,112	21,551	23,936
	비중	(6.9)	(8.3)	(10.1)	(9.8)	(9.3)
해상보험	금액	3,238	3,532	3,488	4,167	5,058
	비중	(1.9)	(1.9)	(1.8)	(1.9)	(2.0)
자동차보험	금액	64,522	68,951	67,792	70,433	81,280
	비중	(38.1)	(36.5)	(34.1)	(31.9)	(31.6)
건강보험	금액	50,833	56,865	63,752	80,502	97,663
	비중	(30.0)	(30.1)	(32.1)	(36.5)	(38.0)
기타	금액	39,186	43,839	43,568	44,045	48,955
	비중	(23.1)	(23.2)	(21.9)	(20.0)	(19.1)
합계	금액	169,448	188,916	198,714	220,700	256,89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2023년 3월 31일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 납입 자본금은 4,037억 루피로 전년도(3,785억 루피) 대비 6.7% 증가했으며, 2022~23 회계연도 동안 투자이익은 총 3,884억 루피로 전년도(3,255억 루피) 대비 19.3% 증가함

- 비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비용과 운영비용은 각각 2,014억 루피, 5,486억 루피로 전년도 대비 19%, 32.3% 증가함
- 보험인수손익은 3,280억 루피로 전년도(3,181억 루피) 대비 3.1% 증가함
  - 공영보험회사의 보험인수손실이 2,532억 루피로 전체 보험인수손실의 77%를 차지함
- 세후손실은 256억 루피로 전년도(286억 루피) 대비 소폭 감소함
  - 공영보험회사의 손실이 1,061억 루피를 기록했으며, 민영보험회사의 순이익은 466억 루피, 특화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93억 루피, 건강보험회사의 순이익은 45억 루피를 기록함

〈표 13〉 인도 손해보험 재무성과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납입 자본금	16,517	21,360	32,842	37,855	40,375
수수료 비용	12,277	13,893	15,409	16,931	20,144
화재	1,179	1,532	2,050	2,161	2,374
해상	330	350	332	435	517
자동차	4,903	5,967	5,543	5,993	7,245
건강	4,057	4,851	5,771	6,766	8,178
기타	1,806	1,191	1,711	1,574	1,829
운영비용	28,624	35,844	38,281	41,455	54,856
투자 이익					
금액	26,288	28,605	29,743	32,546	38,839
성장률	5.1	8.8	4.0	9.4	19.3
세후 순이익					
금액	683	-1,494	3,852	-2,856	-2,565
성장률	-90.1	-318.7	-357.8	-174.1	-10.2
보험인수손익	-22,319	-23,719	-20,038	-31,809	-32,797
배당금	647	1,306	1,001	1,197	1,206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인도의 손해보험시장은 공영보험회사와 민영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특화보험회사로 구분되며, 공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023년 원수보험료 기준 공영보험회사인 The New India Assurance Co. Ltd.가 14.4%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민영보험회사인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Co. Ltd.가 8.0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성장률은 건강보험회사가 2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영보험회사 20.22%, 공영보험회사 10.2%, 특화보험회사 5.12% 순으로 나타남

〈표 14〉 인도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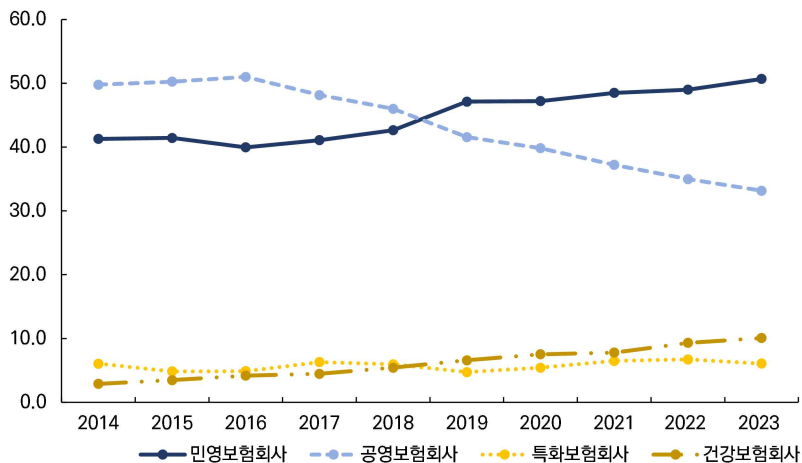
(단위: 천만 INR, %)

회사명	2022		2023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b>공영보험회사</b>	<b>78,335</b>	<b>34.97</b>	<b>86,325</b>	<b>33.16</b>	<b>10.20</b>
National Insurance Co. Ltd.	13,077	5.84	15,206	5.84	16.28
The New India Assurance Co. Ltd.	35,516	15.86	37,482	14.40	5.54
The Oriental Insurance Co. Ltd.	14,020	6.26	15,993	6.14	14.07
United India Insurance Co. Ltd.	15,722	7.02	17,644	6.78	12.23
<b>민영보험회사</b>	<b>109,753</b>	<b>49.00</b>	<b>131,942</b>	<b>50.68</b>	<b>20.22</b>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Co. Ltd.	17,977	8.03	21,025	8.08	16.96
HDFC ERGO General Insurance Co. Ltd.	13,498	6.03	16,636	6.39	23.25
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 Co. Ltd.	13,689	6.11	15,337	5.89	12.04
Tata AIG General Insurance Co. Ltd.	10,025	4.48	13,176	5.06	31.43
...	...	...	...	...	...
<b>건강보험회사</b>	<b>20,867</b>	<b>9.32</b>	<b>26,244</b>	<b>10.08</b>	<b>25.77</b>
Star Health and Allied Insurance Co. Ltd.	11,463	5.12	12,952	4.98	12.99
Care Health Insurance Co. Ltd.	3,881	1.73	5,142	1.98	32.48
...	...	...	...	...	...
<b>특화보험회사</b>	<b>15,047</b>	<b>6.72</b>	<b>15,817</b>	<b>6.08</b>	<b>5.12</b>
Agriculture Insurance Co of India Ltd	13,940	6.22	14,620	5.62	4.87
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India Ltd.	1,107	0.49	1,198	0.46	8.22
<b>합계</b>	<b>224,003</b>	<b>100.00</b>	<b>260,328</b>	<b>100.00</b>	<b>16.22</b>

자료: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그림 2〉 인도 손해보험회사 부문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비중은 중개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3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설계사와 법인 보험대리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방카슈랑스·법인 보험대리점 채널 비중은 2019~20년 34.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23년에는 28%를 차지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개사 채널의 비중은 2019~20년 25.9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액보험 대리점의 경우 저소득층 및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보험 판매채널로 비중이 매우 적게 나타남
  -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2015년 소액보험 규제 수정을 통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협동조합에서 저소득층과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소액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표 15〉 인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sup>1)</sup>

(단위: %)

구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설계사	24.2	24.3	22	20
방카슈랑스	6.4	5.9	5.5	5
법인 보험대리점-기타	4	3.5	3	3
중개사	25.9	30.1	35.1	36
직판 <sup>2)</sup>	28.4	25.9	25.4	25
기타 <sup>3)</sup>	11.1	10.3	9	11
합계	100	100	100	100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판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함

3) 기타 항목은 추천 제도, 소액보험대리점 등이 포함됨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인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인도보험감독청(IRDAI)의 투자 규제에 따라 중앙정부 국채와 지방정부 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해보험업의 경우 2023년 중앙정부 국채에 30.9%, 지방정부 채권에 20.6%를 투자하며 50% 이상을 국채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자산운용은 중앙정부 국채가 30.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지방정부 채권(20.6%), 승인된 투자(22.7%), 인프라(14.2%), 부동산(8.8%) 순임
  - 손해보험업의 경우 투자 규제에 따라 중앙정부 국채에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중앙정부 국채 투자를 포함하여 30% 이상을 중앙정부 국채 또는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해야 함
- 2019년 이후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를 볼 때 중앙정부 국채 및 지방정부 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승인된 투자 및 인프라,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16〉 인도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앙정부 국채	금액	61,546	69,750	91,089	103,130	132,774
	구성비	24.2	23.9	26.1	26.7	30.9
지방정부 채권	금액	40,455	50,314	69,585	83,491	88,464
	구성비	15.9	17.2	20.0	21.6	20.6
부동산	금액	26,161	27,791	28,404	31,122	37,703
	구성비	10.3	9.5	8.1	8.1	8.8
인프라	금액	44,143	48,203	57,572	58,402	60,778
	구성비	17.4	16.5	16.5	15.1	14.2
승인된 투자 <sup>1)</sup>	금액	72,443	85,086	92,098	96,625	97,655
	구성비	28.5	29.1	26.4	25.0	22.7
기타	금액	9,652	11,043	10,023	13,437	11,956
	구성비	3.8	3.8	2.9	3.5	2.8
합계	금액	254,400	292,187	348,770	386,206	429,3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승인된 투자(Approved Investments)란, 인도 보험업법 27A에 명시된 투자를 나타냄. 다만 이중 다른 나라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하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강함(Very strong)'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담보 대출, 예금, 사채, 채권, 기타 부채 상품, 주식 및 우선주 등이 포함됨(예: Standard and Poor의 AA등급)

2)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IV

## 시사점

- 인도는 서비스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 주도형 성장모델의 성격을 가지며 2023년 기준 세계 1위 인구 수를 보유하여 국내 시장의 잠재력이 크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 인도는 2023년 기준, 명목 GDP 규모 세계 5위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인력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 주도형 성장모델을 가진 국가임
  - 인도는 높은 합계출산율과 세계 인구 1위의 국가로 인구의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로 세계에서 5번째로 젊은 국가임
  - 우수한 이공계 노동력 및 혁신적 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경쟁적인 시장을 갖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여 글로벌 공급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최근 인도보험감독청(IRDAI)는 인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와 인슈어테크 혁신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확대하여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진출을 촉진시키고 있음
  - 2015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인도보험감독청(IRDAI)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인도보험감독청(IRDAI)이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인도 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통합하고 온라인 보험시장 설립과 같은 규제를 도입함
- 2023년 인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9%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중산층 확대, 규제 완화 등을 동력으로 인도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보험시장은 공영보험시장과 민영보험시장으로 나누어지며,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73.7%, 26.3%로 생명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도 생명보험시장은 사망보험과 퇴직연금(Pension)이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약 95%를 차지함
  - 인도 손해보험시장은 건강보험회사와 민영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저자약력

손유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yson@kiri.or.kr

유성현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ush@kiri.or.kr